

생선회·스테이크 내맘대로...식재료 'DIY' 시대

이마트, 23일까지 'DIY 생선회 페스티벌' 최대 30% 할인

롯데마트 '스테이크 345' 운영...전년비 매출 106% 급증

거리두기 강화로 집에서 밥을 해먹는 소비자가 크게 늘면서 대형마트가 고객 맞춤형 식재료를 내놓고 있다.

단순히 상품 가짓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고객 기호에 맞춰 식재료를 가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마트는 17일부터 23일까지 고객이 직접 기호에 맞춰 요리할 수 있는 'DIY 생선회(필렛회)'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DIY(Do It Yourself)는 소비자가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반제품상태의 제품을 구입해 직접 조리하거나 제작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행사 기간 동안 이마트는 '내 마음대로 연어 필렛회', '내 마음대로 한끼 연어회', '내 마음대로 참돔 곱질회', '내 마음대로 레몬 비트 속성 연어회'를 행사 카드 사용 때 최대 30% 할인해준다.

'내맘대로 광어회(필렛)'는 신세계포인트 회원이면 20% 할인받을 수 있다.

DIY 생선회는 기존에 볼 수 있었던 잘라진 형태의 회가 아니라, 고객들이 회, 초밥, 회덮밥 등 요리 기호에 맞춰 회의 두께와 넓이를 조절해서 자를 수 있도록 '손질된 필렛' 형태를 말한다.

코로나19가 국내 확산한 이후 이처럼 집에서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한 식재료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마트에서 지난해 DIY 연어회(필렛 형태) 매출은 전년보다 130% 급증했다. DIY 광어회 역시 130% 가량 매출이 늘었다.

2020년 연어회 전체에서 약 30% 가량 비중을 차지했던 DIY 연어회는 이듬해 비중이 약 80%로 증가했다.

이들 식재료는 초밥과 연어장, 샐러드, 회덮밥 등 '집밥'으로 변신하며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마트는 참돔 곱질 회나 레몬비트 속성 생 연어회 등도 할인가격에 내놓는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5월부터 전국 축산매장 안에 원하는 두께의 고기를 가져갈 수 있는 '스테이크 345'라는 이색 공간을 마련했다.

이곳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고기 두께를 3cm, 4cm, 5cm 등으로 맞춰 잘라준다. 70cm 길이 별도 진열도구를 마련해 고객 호응을 높이기도 했다.

스테이크 345가 선보이는 토마호크, 돈마호크, 티본스테이크 등 이른바 '만화고기'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638.7% 뛰기도 했다.

이 매장은 100% 항공 직송으로 공수한 양고기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양고기 매출은 전년도보다 120.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의 스테이크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106.1% 급증했다. 집밥 가정의 안목이 까다로워지면서 롯데마트 스테이크 매출액의 36% 가량은 '프라임' 등급이었다.

편의점 이마트24는 지난 14일부터 식물성 참치를 활용한 삼각김밥과 샌드위치 등 먹거리 3종을 선보이며 선택 폭을 넓혔다.

채식을 즐기는 고객들을 겨냥해 출시한 이번 상품은 모바일 앱 예약구매를 통해 원하는 시간과 매장을 지정해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켄텍, 한국조선해양과 친환경 에너지 기술협력 협약

2주일 뒤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ECH)가 한국조선해양과 협약을 맺고 친환경 미래 에너지 기술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윤의준 총장과 김성준 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 연구원장(CTO)은 지난 15일 나주 임시 사무실에서 만나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조선해양은 선박-해양플랜트(시설)와 엔진 기계 분야에서 친환경 선박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에너지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연구개발 관련 자료 및 정보 교류 ▲산학 및 국가 연구과제 공동 추진 ▲인력 교류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이 친환경 에너지 기술개발과 탄소 중립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함께 이행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테크노파크 '헬스케어 로봇실증단지' 우수사례 선정

중기 생산제품 시험·인증 가능

광주테크노파크는 '헬스케어 로봇 실증단지 구축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기반조성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가 지원하고 광주테크노파크가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의료·헬스케어 로봇 분야를 특화 육성하기 위해 광주테크노파크 2단지 에 헬스케어 로봇 실증센터를 구축, 지역 헬스케어 로봇 기업이 겪는 어려움인 인허가 지원을 위해

KOLAS 공인시험기관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의료기와 전자기적합성 등 총 6개 분야의 공인시험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제품을 지역에서 시험·인증,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밖에 광주시는 지역 헬스케어 로봇 기술·제품의 사업화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후속사업으로 라이프케어 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기존 구축된 헬스케어 로봇 실증센터

를 활용해 헬스케어 로봇 기술·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6억원이 투입된다.

광주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과 연계해 지역 내 라이프케어 로봇·의료기 관련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선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우수사례로 선정된 헬스케어 로봇 실증센터 인증 기반을 활용해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과 융합 아이템 발굴을 통해 지역 중소 헬스케어 기업이 성장하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신협 광주전남본부, 성과평가서 전국 1위



'최우수 지역본부'에 선정된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문규·앞줄 왼쪽 8번째)가 16일 열린 정기대의원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신협 제공)

25개 부분 실적 초과 달성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중앙회 성과평가에서 전국 10개 지역본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개최된 제49차 정기대의원회에서 광주전남본부는 '2021년 최우수 지역본부'로 선정됐다.

지난해 광주전남본부는 지역본부 성과관리 실

적 25개 부분 목표를 109.5% 초과 달성했다.

전국 10개 본부 가운데 유일하게 '0%대 연체율'(0.92%)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함께 열린 '2021년 조합 종합경영평가 시상식'에서 윤성철 나주신협 이사장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윤정구 순천신협 이사장과 김원근 여수중앙신협 전무가 금융감독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정기수 방림신협 이사장은 종합경영평가 1군 1위 대상을 받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 지원대상 스타트업 모집

신용보증기금이 오는 3월7일까지 업력 2년 이상 10년 이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7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보는 혁신적인 사업안을 가진 스타트업이 차세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5개 인פק 기업을 뽑는다.

선정된 기업에는 ▲3년간 최대 150억원의 신용보증 제공 ▲최저보증료율(0.5%) 적용 ▲6개 협약 은행을 통한 0.7%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지원

▲해의 진출, 컨설팅, 홍보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 후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신산업 영위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다.

연 매출 5억원 이상이고 2개년 평균 매출성장률이 10% 이상인 기업 또는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대상이다.

신청은 신보 온-비즈(kodit.co.kr/sut/index.do)에서 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 취득세 개편 대선 공약 지방재정 영향 고려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 발간

여야 대선 후보의 부동산 취득세 부담 완화에 대한 공약이 차이를 보이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공약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이 최근 발간한 지방세이슈페이퍼(TIP) '부동산세제 대선 공약과 지방재정'(박상수 선임연구원)에 담겼다. 이 보고서는 부동산 세제 공약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세제 대선 공약 중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므로 세제개편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소분의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취득세 부담을 인하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주

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취득에 대해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취득세 공약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 부과 기준 상향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부담 완화는 연평균 7000억원 정도의 지방세입 감소를 초래한다. 국민의힘 공약인 취득세율 단일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등은 모든 주택의 취득세 부담을 현행과 크게 달라지게 한다. 이는 지방세수의 근간인 취득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연구원 측은 내다봤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주택거래도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3774건으로, 전월보다 19.9%, 지난해 같은 달보다 61.7% 감소했다.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주택 경기와 맞물려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취득세 개편 가능성도 들었다.

취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0년 기준 28.9%(29조5000억원)으로, 취득세 개편은 지방재정 전반의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 내다봤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민주당은 일정 요건을 갖춘 2주택자에 대해서만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중부세 납세의무자 전체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이직이나 취학 등으로 인한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고, 농어촌주택의 합산배제를 담은 민주당 공약이 종합부동산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공약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세율 인하, 차등과세 기준 변경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전액 지방교부세 재원인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큰 폭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종합부동산세 개편, 취득세율 인하 등이 지방소비에 도입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이어진 바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세제 개편 가능성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h2> <p>기초반, 중급반</p>		<h2>상가매매(상무지구)</h2>	<h2>신축원룸매매(신축)</h2>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 기초반, ● 중급반, ●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p> <p>시세 -> 9억</p> <p>급매가 -> 5억8천</p> <p>(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결(공실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수익 750만 ● 년수익 9000만 ●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p>★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 	<p>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 	<p>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 	
<h1>010-6670-9800</h1>			